

섬 전체가 미술관!

카가와현 (일본)의 나오시마 등을 무대로 한 현대 아트 축전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2022” 개막

안도 타다오 건축과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에 의해 “현대 아트의 성지”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The NY Times 에서 52 Places to GO 에도 선정된 카가와현(일본)의 나오시마를 포함한 12 개의 섬들을 무대로 하는 현대 아트 축전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2022”가 2022 년 4 월 14 일부터 11 월 6 일까지 펼쳐진다.

2010 년 첫 개최 후, 3 년마다 개최되는 트리엔날레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예술제는 매 회 100 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트 페스티벌로 올해로 5 번째의 개최이다.

지난 번에 이어서 봄(4 월 14 일~5 월 18 일), 여름(8 월 5 일~9 월 4 일), 가을(9 월 29 일~11 월 6 일)의 3 시즌(총 105 일간)에 나뉘서 개최. 나오시마, 데시마, 메기시마, 오기시마, 쇼도시마 등 세토내해의 12 개의 섬들과 카가와현의 다카마츠항 주변 등 14 곳의 에리어가 회장이 된다.

33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안도 타다오, 쿠사마 야요이, 레안도르 에를리치 등 184 팀의 아티스트가 참가하고, 아트 작품의 숫자는 214 작품을 예정. 한국 작가로는 나오시마에 상설 미술관을 보유한 이우환, 쇼도시마에 작품이 있는 최정화 등 4 명이 참가한다.

예술제 실행 위원회는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는 처음부터 “바다의 복권(復權)”을 테마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교차하고 교향해 온 세토우치 섬들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고, 세토우치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의 “희망의 바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라고 밝혔다.

이 예술제 종합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후쿠타케 소이치로는 “큰 사회문제가 우리들 앞에 들이닥쳐 있는 현재, 메시지성이 높은 현대 아트와 마주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몸을 두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풍요로움, 진정한 행복,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는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깊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또 종합 디렉터인 키타가와 플럼은 “미술은 자연의 생리에 솔직한 아티스트의 다층, 다양한 표현에 의해 지금 우리들, 우리들의 문명, 사회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심어준다”며, “이 예술제가 이 지역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아 눈과 마음이 세계로 이어지는 예술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전망을 이야기했다.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2022 홈페이지
<https://setouchi-artfest.jp/kr/>

카가와현 한국 사무소

(주)FINEZONE 사원 용지현

TEL. 02-725-8232~3

MAIL. jhyong@finezone.co.kr